

# 덕아웃 시야·선수 수비 방해...1·3루 익사이팅존 ‘뜨거운 감자’

## 완공 임박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 가보니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의 완공이 임박했다. 직접 파장을 하며 키운 잔디가 곱게 그라운드를 덮었고, 관람석에도 빨간 의자가 덮여가고 있다.

◇최고·최대의 관중친화형 구장  
 13일 현재 공정률은 87%. 지하 2층 지상 5층, 2만2244석 규모의 골조공사와 지붕공사에 이어 관람석 공사가 한창이다.

238석 규모의 내야 테이블석이 자리를 잡았고 관람석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관중친화형 구장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넉넉한 좌석과 동선이 눈길을 끈다.

관람석 간격은 85cm(무등경기장 65cm)로 늘었다. 완만한 경사에도 불구하고 내야석 의자를 지그재그 형태로 배치하면서 관람객들의 시야는 넓혀졌다.

본부석에서 포수까지의 거리는 국내에서 가장 짧은 18.5m로 편안한 좌석에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국내 최초로 콘코스(Concourse) 개방형 구조를 도입하면서 관람객들이 화장실, 매점 등으로 이동을 하면서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외야에는 국내 최대 규모(35m×15m)를

자랑하는 풀 HD급 전광판 설치를 위한 골조작업이 진행되는 등 챔피언스필드가 서서히 그 위용을 갖추고 있다.

지난 4월 새 그라운드에 파종했던 잔디도 새파랗게 자리를 잡으면서 광주의 새 명소가 탄생할 앞두고 있다.

◇그라운드 초점 맞춤 마지막 검토 필요  
 관중친화형 구장에 초점을 맞춰 공사가 진행됐다면 이제는 사용자 편의에 맞춰 세부 점검을 해야 한다.

2014시즌부터 KIA의 안방으로 사용될 챔피언스필드는 ‘타자 친화형’ 구장이 될 전망이다. 외야의 좁은 파울라인과 돌출형 익사이팅존 탓에 파울플라이 수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3루에 설치된 익사이팅 존은 ‘뜨거운 감자’다. 익사이팅 존은 팬들이 생생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관람석 밖으로 빼어 놓은 또 다른 관람석. 최근 추세에 맞춰 익사이팅존을 마련했지만 선수들의 안전과



관람석 밖으로 돌출된 익사이팅존. 외야의 좁은 파울라인과 겹쳐 선수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챔피언스필드 외야에 마련된 볼펜. 그라운드가 보이지 않고 협소해 재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내외야 경계 돌출...선수 충돌사고 위험 외야 볼펜, 덕아웃 연결 안돼 투수 불편 4·5층 급경사 관람객 안전 대책 세워야

덕아웃 시야 방해라는 문제가 남아있다.

외야의 폭이 좁은데다 내외야의 경계 지점에 뾰족한 형태로 돌출되면서 수비도중 선수들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다. 또 익사이

팅존에 가려져 덕아웃에서 외야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고민이다.

볼펜 보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공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 구장에 관

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투수 양현종은 “볼펜이 덕아웃과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현종의 바람과 달리 공간 배치의 문제로 현재 볼펜은 외야에 마련됐다.

콘크리트 벽이 높게 쳐진 볼펜 규모는 대략 5m40cm×20m. 안전을 위한 그물망과 선수들의 대기 공간 설치를 생각한다면 두 명의 선수가 한 번에 몸을 풀 수 없는 공간이다. 여기에 높게 세워진 콘크리트 벽 때문에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내다 볼 수가 없어 또 다른 공사가 불가피하다.

이외에도 ‘투박한 안전 펜스 앞좌석과

스카이 박스 관람석 시야를 방해한다’, ‘갑작스런 설계 변경으로 인해 경기 감독관실이 포수 뒤쪽 관람석에 돌출돼 들어서면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부지가 협소해 4·5층이 급격한 경사로 이뤄진 만큼 관람객 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탄생하게 된 새 구장이 선수·관람객·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러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강민호, 75억 ‘잭팟’

## 프로야구 FA 역대 최고액... 롯데와 4년 계약



포수 강민호가 75억의 역대 최고액에 롯데 자이언츠와 FA(자유계약선수) 계약을 맺었다.

롯데는 강민호와 4년간 총액 75억원(계약금 35억원·연봉 10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05년 삼성 라이온즈와 4년 최대 60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던 심정수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대우다.

2004년 2차 3라운드로 롯데에 입단한 강민호는 통산 1028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1, 안타 903개, 홈런 125개, 타점 512개를 기록했다. 골든글러브도 세 차례(2008년·2011년·2012년) 수상하는 등 포수로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이로써 강민호는 올해 FA 권리 행사를 신청한 16명의 선수 중 가장 먼저 계약을 마쳤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로 병역 문제를 해결한 강민호는 FA를 선언한 역대 포수 중 첫 20대 선수라는 점에서 희소 가치가 있다. 올해 타율 0.235, 11홈런, 57타점으로 방망이는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도루저지율이 0.381로 높고 투수 리드가 뛰어나 포수난에 허덕이는 한국 야구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광주 FC’ 루시오 주간 MVP

## K리그 챌린지 32R



영예를 안았다. 미드필더 임선영과 수비수 마철준·여름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루시오는 지난 총주와의 경기에서 페널티 킥 키커로 나서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2골 1도움의 활약을 하며 광주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선정위원회는 루시오의 활약에 대해 “2차례 PK 득점뿐 아니라 팀 동료에게 정확히 배달된 도움으로 상대 위협했다”고 평가했다.

찬스 메이커로 그라운드를 누빈 임선영은 “기회가 나면 과감한 슈팅으로 공격의 물꼬를 댔고 수준급 중원 플레이 병행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베스트 11이 됐다.

말형 마철준은 “풍부한 경험으로 뛰어난 경기 운영력을 과시하며 수비진을 안정적으로 리딩했다”는 평가 속에 두 경기 연속 주간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박희성의 부상으로 중앙에서 측면수비수로 자리를 옮긴 여름은 “때로는 현명하게, 때로는 터프하게 상대 공격을 차단하며 팀 승리를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업어치기 으랏차차~

13일 경북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 겸 2014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남자부 -81kg급 준결승에서 김재범(한국마사회·오른쪽)이 정원준(용인대)에게 업어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 대회부터 73kg급에서 한 체급 올려 81kg급으로 출전해 기대를 모은 왕기춘(포항시청)은 16강전에서 탈락해 김재범과의 맞대결이 무산됐다.

/연합뉴스

# 품절남 ‘인민 루니’

## 수원 삼성 정대세 내달 결혼

프로축구 수원 삼성에서 뛰는 ‘인민 루니’ 정대세(29)가 한국 국적의 여성과 다음 달 백년가약을 맺는다.



수원은 13일 “정대세가 12월 14일 서울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국내 모 항공사 승무원과 결혼한다”고 밝혔다.

정대세와 예비 신부는 지난 5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했으며, 최근 양가의 허락을 받아 결혼을 준비해 왔다고 구단은 설명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해방 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정대세는 북한 대표팀의 주축 공격수로 활약했다.

일본 리그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다가 올 시즌 수원에 합류해 활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 FIFA U-20 월드컵

## 한국, 유치전 동참

한국이 2017 국제 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구 대한 축구협회장이 14일(한국시간) U-20 월드컵 유치신청을 위해 FIFA 본부를 방문, 제프 블래터 FIFA 회장과 만나 유치신청서(비드북) 및 개최협약서를 제출하고 한국 개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U-20 월드컵은 FIFA 주최 국제대회 중 성인 월드컵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회다. 한국 대표팀은 터키에서 열린 올해 대회에서 8강에 오른 바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5월 2017년 대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했고, 7월에는 유치절차 및 참여조건 승낙협약서를 제출, 유치신청 절차를 밟아왔다.

2017년 U-20 월드컵은 한국을 필두로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영국, 프랑스 등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개최국은 12월 5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FIFA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연합뉴스